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 어휘적 접근*

홍재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I. 머리말 - 기능동사의 개념과 특성

우리는 이 글에서 기능동사 verbe support 구문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어휘적 속성—술어명사와 기능동사의 어휘적 공기 co-occurrence 현상의 총위에서 실현되는—에 대한 관찰을 통해, 기능동사에 대한 어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바탕을 둔 방법론적 테두리 내에서 연구프로그램 형식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어휘적 접근방식이라 함은 어휘부 lexique 구축을 가장 핵심적인 언어학 연구작업으로 설정하는 언어표상모형을 총칭하며, 여기서 관찰·분석되는 대부분의 언어적 속성에 대한 어휘부적 표상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M. Gross의 어휘·문법¹⁾lexique-grammaire, I. Mel'čuk의 결합·설명사전²⁾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및 G. Gross의 대상부류³⁾classes d'objets 구축의 방법론적 틀을 절충·통합하는 어휘부 구성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다.

우선 (1)-(2)의 표현들을 살펴보자.

- (1) ㄱ. 형주는부장에게현장상황을보고하였다.
 - ㄴ. 형주는부장에게현장상황에대해(서)보고하였다.
- (2) ㄱ. 현장상황에대한형주의보고.
 - ㄴ. 형주의현장상황-(?^{의+E)}보고
 - ㄷ. (형주에의한+E)현장상황-(의+E)보고

(1)-(2)의 표현들은 ‘보고하는 행위’⁴⁾를 특징짓는 술어 prédicat가 각각 동사어휘 범주

* 이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 연구비의 수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1) M. Gross (1975).

2) I. Mel'čuk *et al.* (1984), (1988), (1993).

3) G. Gross (1994), *Languages* 131 (1998).

4) 의미기술 또는 의미적 실체의 표기는 홑따옴표(‘ ’), 이에 대응되는 언어요소는 밑줄(____)을 사용하여 구별하기로 한다.

(보고하다)와 명사어휘법주(보고)로 투사되어 구성된 것이다. 이 경우 보고는 술어명사nom prédicatif로 특징지어 진다. 이 글의 주제인 기능동사 개념을 예시하기 위하여 문제를 단순화시켜 본다면, 술어 ‘보고’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논항argument을 취하는 3항술어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보고’(X, Y, Z)⁵⁾

X = 보고하는 사람

Y = 보고의 주제(또는 내용)

Z = 보고받는 사람

(1)의 표현들은 술어 ‘보고’와 그것이 지배하는 논항들이 동사 보고하다를 중심으로 구성한 단문의 사례를 보여준다. 제1논항은 주어로, 제3논항은 -에게 여격보어로, 제2논항은 (1) 그에서는 목적보어로, (1) 냐에서는 사격보어로 실현되었고⁶⁾, 동사 보고하다에는 한국어에서 술어가 문장화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법법주(시상, 문의 양태 및 화계)를 실현시키는 선어말/어말어미 -였-단가 부착되었다.

이에 대해 (2) 그-느의 표현들은 술어 ‘보고’가 명사어휘법주로 실현되고 이 명사를 핵tête으로 구성되는 명사구의 사례가 된다. 이것들은 ‘보고’의 논항들이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통합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5) 논항은 X, Y, Z의 변항으로 표기한다. X는 제1논항, Y는 제2논항, Z는 제3논항으로 구별된다.

6) -에 대해(서) [대하여]의 형태·통사론적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격표지인 조사로 분석한다. 또한 이 복합표지가 뒤따르는 명사구의 통사적 지위 —보어/첨어의 구별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나, (1) 그-느의 보고하다구문의 경우에 다음 i) 그-느 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어분석을 채택하기로 한다.

i) 그. 지혜는 촘스끼-(에 대해 + 를) 근거없이 비판했다.

느. 기영이는 지혜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꼈다.

7) (1)과 (2)의 표현들은 동일한 술어-논항구조의 두 가지 언어적 실현으로 가정하고,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양상과 그 가능한 제약의 관점에서 두 유형의 표현이 보이는 대응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논항을 X, Y, Z의 변항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1)-(2)의 표현이 보여주는 동사 보고하다구문과 술어명사 보고구문은 각각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에 대해(서)가 명사구 내의 통사논항 표지로 쓰이면 -에 대한의 형태가 된다.

ii) X-가 Z-에게 Y-(를 + 에 대해) 보고하다

iii) 그. Y-에 대한 X-의 보고

느. X-의 Y-(의 + E) 보고

느. X-에 의한 Y-(의 + E) 보고

이 표기방법은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기능동사 구문의 통사표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휘법주별 전문언어사전 편찬작업의 일환으로 술어명사 사전을 구축할 때, 이와 같은 표기방식은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구체적인 술어명사 사전에 대한 구상이나 명사사전에 통합된 술어명사의 사전적 기술의 단편적인 실례는 홍재성(1997)과 홍재성·박동인외(1998)을 참조할 것.

(2) 그은 제1논항이 -의 보어로, 제2논항이 -에 대한 보어로 실현된 구문이고, (2) ㄴ은 제1논항이 -의 보어로 제2논항에 선행하면 제2논항의 표지는 영형태가 적절하고 -의는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구문이고, (2) ㄷ은 제2논항의 표지가 -의 일 경우, 제1논항은 -에 의한 보어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⁸⁾ 우리는 (2) ㄱ-ㄷ과 같이 하나 이상의 논항이 술어명사구의 보어로 실현된 경우를 통합명사구로 지칭하고, 술어명사로만 구성된 분리명사구와 대조를 시킬 것이다. 분리명사구의 예는 아래 (5) ㄴ이 보여준다.

또한 (2) ㄱ-ㄷ은 ‘보고’의 제3논항이 이와 같은 통합명사구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명사구 구성은 그 가용성이 대단히 회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2) ㄹ *부장에 대한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⁹⁾

(2) ㄱ-ㄷ의 명사구는 다음과 같은 동사/형용사 구문에서 다양한 통사위치에 자유로운 분포를 보일 수 있다.

(4) ㄱ. 부장은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기다렸다.

- ㄴ.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가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 ㄷ. 형주에 의한 현장상황의 보고는 불필요했다.
- ㄹ. 참석자들은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4) ㄱ-ㄷ의 문장은, 목적보어(기다리다의 경우)나 주어(계속되다, 불필요하다의 경우) 또는 사격보어(숙어구문 귀를 기울이다의 경우) 위치에 사태를 표상하는 명제적 내용이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문, 다시 말해 술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이차술어의 성격을 지닌 동사/형용사 구문(그리고 숙어동사 구문)의 예를 보여주는데, 보고를 핵으로 하는 통합술어명사구는 바로 명제적 내용의 통사적 실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4) ㄱ-ㄷ은 의미론적으로는 단문이 아닌 복문—또는 이중명제적 bipropositionnel 구문—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4) ㄱ-ㄷ의 통합술어명사구 위치에는 형주가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명시적인 보문이 실현될 수도 있다.¹⁰⁾ 한편 (1) ㄱ-ㄴ에 대하여 환언관계 paraphrase를 이루는 단문구성이 가능한

8) 이항술어 ‘사랑’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iv) ㄱ. Y-에 대한 X-의 사랑

ㄴ. X-의 Y-(^{*}의 + E) 사랑

9) 이러한 제약은 삼항술어인 연락, 통지, 제시등의 경우에도 관찰할 수 있는데, ‘약속’의 경우에는 제3논항의 명사구 통합이 가능하다.

v) Z-에 대한 X-의 Y-([”]의 + E) 약속

부장에 대한 형주의 지지 약속

10) 기다리다 구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데, 문장 (5) ㄱ-ㄴ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준다.

(5) ㄱ. 형주는부장에게현장상황-(에대한+E)보고를하였다.

ㄴ. 형주는부장에게현장상황-(에대해+을)보고를하였다.

(5) ㄱ-ㄴ은 명사법주로 투사된 술어 ‘보고’가 의미적인 핵을 구성하며 그것이 지배하는 논항들만으로 문장이 구성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5) ㄱ-ㄴ은 단문으로 특징지워 질 수 있는데, 의미상 술어명사 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이외에 (1) ㄱ-ㄴ과 대조되는 점 중의 또 하나는 동사 하다의 사용이다. 한국에서는 술어가 문장화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법법주의 표지인 -였, -다가 명사에 부착될 수는 없다.

(6) *형주는부장에게현장상황을보고-았다.

다시 말하면 명사법주의 어휘에는, 그것이 의미상 술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한국어 특유의 형태·통사론적 기제에 의해 시제/상/문의 양태 등의 문법법주 표지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정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들 문법법주가 규칙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들 표지를 받쳐주는 베풀목 support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5) ㄱ-ㄴ의 문장에서 하다는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선택된 어휘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다는 기능동사 verbe support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 선택된 하다는 어휘적 의미가 비어있다거나 어휘 의미상 술어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유의 논항 구조를 지니고 일정한 통사구조에 대응되는, 달리 표현하면, 통사적 논항—주어와 보어—에 대해 선택제한을 가하고, 또 통사적 논항을 하위법주화하는 어휘적 동사가 아닌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5) ㄱ-ㄴ의 하다 구문을 특징짓는 주어/보어 위치에 실현된 의미논항의 영역 domaine/명사부류는 술어명사 보고에 의해 한정된 것이지, 동사 하다에 의해 제약받은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하다 구문을 구성하는 통사적 논항의 수나 그 실현양상이 하다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¹¹⁾ 그것은 한국어

vi) 부장은 형주가 현장상황-(에대해+을)보고-(하는것을+하기를) 기다렸다.

(4) 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문이 가능하다.

vii) 참식자들은 형주가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데에 귀를 기울였다.

11) 이러한 성격의 하다 동사의 가능한 구문은 대단히 다양한데, 그 중 몇 경우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viii) ㄱ. X-가 사망을 하다

ㄴ. X-가 Y-와 결혼을 하다

ㄷ. X-가 Y-에 참석을 하다

ㄹ. X-가 Y-를 사랑을 하다

ㅁ. X-가 Y-(를+에대해) 연구를 하다

문장구성의 원리상 필수적인 통사적 술어위치를 채우는 일종의 허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5) ㄱ-ㄴ 문장의 특징적인 점은, (4) ㄱ-ㄹ과 대조적으로 보고의 의미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보고 명사구 외부에 실현된 것이다. (5) ㄱ의 경우는 제2논항의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주지만, 제1논항은 (5) ㄱ-ㄴ 유형의 문장에서 술어명사구 속에 내재화 될 수 없다.

(7)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하였다.

(7)은 주어위치를 어휘적으로 보충하여도 정문으로 개선될 수 없다.

(8) *기영이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하였다.

(4) ㄴ에서 하다를 일반어휘동사로 대치해 보면, 분리구성이 불가능함을 관찰할 수 있다.

(4) ㄴ'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을) 보고를 (연기하였다 + 묵살하였다)

여기서 (4) ㄱ-ㄴ 유형의 기능동사 구문이 지닌 두드러진 관찰적 속성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9) 단일술어어휘 —이 경우는 단일 동사— 구문과 내용이 존재하고 그것과 환언관계를 이룬다.¹²⁾

(10) 술어명사를 의미적 핵으로 —통사적으로는 후치사 -을이 뒤따르는 보어 위치에 실현되어 있다— 하는 단문을 구성한다.

(11) 술어명사구는 통합구성/분리구성이 가능하다.¹³⁾ 그러나 통합구성에는 제약이

- ㅂ. X-가 Y-(를 + 에게) 의지를 하다
- ㅅ. X-가 Y-(에게 + 와) 인사를 하다
- ㅇ. X-가 Z-에게 Y-를 약속을 하다
- ㅈ. X-가 Z-와 Y-를 교환을 하다
- ㅊ. X-가 Z-와 Y-를 W-와 교환을 하다

하다 기능동사 구문의 좀 더 자세한 기술은 홍재성 · 김현권외(1997)을 참고할 것.

12) 이러한 진술은 최근의 생성문법적 연구의 가설과 달리 (1) ㄱ-ㄴ의 보고하다를 복합어 성격의 단일동사—한 단어—로 기술하는 분석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 한편, 보고하다가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파생어 분석을 택하는 한국어학의 전통적 관점과 대조적으로 보고하다를 맛보다나 욕먹다와 같이 N+V 구성의 합성동사로 특징짓는 분석을 채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3) 분리술어 명사구의 실현을 기능동사 구문의 본질적 속성으로 한정하고 엄밀하게 통사론적 관점에서 통합술어 명사구를 내포하는 구문을 비기능동사 구문으로 보는 분석을 배제하는

있어서 제1논항의 내재화는 불가능하다.

- (12) 기능동사는 일반어휘동사와 달리 술어적 의미가 비어있다.

이 이외에 두 가지 속성만을 더 지적해 두기로 하자.¹⁴⁾

- 관계절과 속격보어의 대응

기능동사 구문은 술어명사를 핵으로 하는 관계절화가 가능한데, 이와 같은 관계절은 속격보어와 의미상 대응될 수 있다.

- (13) ㄱ. 형주가 (하는 + 한 + 할) 보고 - 형주의 보고
- ㄴ. 기영이가 (하는 + 한 + 할) 주장 - 기영이의 주장
- ㄷ. 우석이가 (하는 + 한 + 할) 질문 - 우석이의 질문

- 양태부사/형용사의 대응

(4) ㄱ-ㄴ 유형의 기능동사 구문에는 자세히/자세하게와 같은 양태부사의 삽입이 가능한데, 이 부사는 술어명사구에 형용사의 관형형 형태로 통합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이와 같은 기능동사구문에서의 부사/형용사 수식어 성분 사이의 대응을 보여준다.

- (14) ㄱ. 형주는부장에게 (자세하게 + 자세히) 현장상황- (에 대해 + 에 대한 + 을 + E) 보고를 했다.
- ㄴ. 형주는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대한) 자세한 보고를 했다.
- ㄷ. 형주는부장에게 자세한 현장상황 보고를 했다.¹⁵⁾

우리는 술어 ‘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어 표현 (1)-(2) 및 (5)의 자료에 한정하여 개략적으로 기능동사의 개념을 한정하고 기능동사 구문을 특징지어 보았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능동사 구문의 연구 테두리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들을 다루기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보려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어휘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14) 기존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기능동사 구문의 또 다른 속성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언급될 것이다.

- 15) 자세한이 현장상황과 보고 사이에 놓일 수 없음은 이 문장에서 현장상황 보고가 한 성분—제2논항이 내재화된 통합명사구—임을 보여준다. 자세한이 (14) ㄱ에서와 같이 부사로 실현되면, 보고를과 했다 사이에 분포될 수 있다. 그것은 보고가 분리명사구를 이루는 경우, 특히 그 논항 중 하나가 N-을의 형상을 갖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ix) ㄱ. 형주는부장에게 현장상황(-의 + E) 보고를 (자세하게 + 자세히) 했다.

ㄴ. 형주는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을) 보고를 (자세하게 + 자세히) 했다.

II. 기능동사분석의 문제

기능동사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로 열거해 보자.

- (15) 기능동사 구문의 존재는 범언어적 현상인가?
- (16) (ㄱ) 기능동사 개념에 전제가 되는 술어명사는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ㄴ) 술어명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유형화할 것인가?
- (17) (5) ㄱ-ㄴ의 기능동사 구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ㄱ. -을로 표지된 술어명사구의 통사적 지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격보어/목적 보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위의 통사 성분인가?¹⁶⁾
 - ㄴ. (5) ㄱ-ㄴ과 같은 유형의 구문에서 하다만이 유일한 기능동사로 분포되는가? 하다와 대치되어 기능할 수 있는 동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동사인가?
 - ㄷ. (5) ㄱ-ㄴ과 같은 유형의 구문에서 술어명사가 의미적으로 지배하는 논항의 통사적 실현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한 경우에 서술의 위치에 선택되는 동사 역시 기능동사로 특징지을 수 있는가?
 - ㄹ. 술어명사가 N-를 이외의 통사 위치에 분포되어 단문을 구성할 가능성은 없는가? 가능하다면 그 때 선택되는 동사도 기능동사로 분석할 수 있는가?
- (18) (9)의 특징은 얼마나 일반적인가? 이 질문은 다음 ㄱ-ㄴ의 질문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또 (9)의 특징에 관련하여서는 ㄷ의 질문이 제기된다.
 - ㄱ. 기능동사 구문에는 항상 단일술어어휘 구문이 대응되는가?
 - ㄴ. 역으로 모든 단일술어어휘 구문에 대해 항상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다음 두 가지 하위 질문으로 분할된다.
 1. 단일술어어휘에는 항상 술어명사가 대응되는가?
 2. 단일술어어휘/술어명사의 대응이 존재하는 경우 항상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가?
 - ㄷ. 기능동사 구문/단일술어어휘 구문의 대응이 존재할 때 항상 환연관계가 성립되는가?
- (19) (5) ㄱ-ㄴ의 기능동사 구문이 보여주는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사이의 대응에

16)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N-를 기능동사 구문의 여러 제약적 속성—N-를의 대명사화 불가능성, 의문문/분열문에서 초점화 불가능성—이나, (5) 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이중(또는 삼중) N-를 기능동사 구문의 구조와 그 내부에서의 술어명사의 특이한 통사행태—이동제약, 수식어 첨가 제약, 관계절 형성제약 등—의 해명을 내포한다.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들 질문은 (17) ㄴ-ㄹ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한 것이다.

ㄱ. 모든 기능동사 구문에서 술어명사구의 분리구성이 가능한가?

ㄴ. 모든 기능동사 구문에서 통합구성/분리구성의 이중성을 관찰할 수 있는가?

ㄷ. 모든 기능동사 구문에서 통합구성은 가능한가? 통합구성에 제약이 있는가?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5) ㄱ-ㄴ은 제3 논항이 통합되기 어려운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ㄹ. 술어명사구의 분리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통사적 기제는 무엇인가?

(20) 기능동사 구문의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사이의 대응과 관련하여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ㄱ. 기능동사는 진정 술어명사의 논항에 대해 선택제약을 부과하지 않는가?

ㄴ. 기능동사는 그것이 실현되는 단문의 통사구조를 제약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좀 더 일반화하면 다음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술어명사의 논항의 통사적 실현양상은 무엇에 의해 지배되는가?

(21)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연쇄의 어휘관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투명한 통사/의미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가?

(22) 기능동사는 진정 의미가 비어있는가? 의미를 담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격/범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글에서는 (15)-(22)의 문제들 중 몇몇은 차후의 별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없이 특정 가설과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휘적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제 (15)는 기능동사 가설을 수용할 때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광범위한 경험적/이론적 탐구가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특정 언어 내에서 기능동사 구문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그 언어의 통사·어휘적 특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리라는 것이다.

(23) ㄱ. 명사/동사의 두 품사범주가 별개의 형태·통사론적 속성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다.

ㄴ. 술어의미가 명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 별개의 범주로 실현된다.

(23) ㄱ의 속성은 대부분의 언어가 공유하는 일반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명사/동사의 구별이 불분명하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Salish어를 비롯한 일부 언어의 경우는 기능동사 구문의 부재를 예측할 수 있고, 술어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요소가 동일한 형태로 명사적 기능과 동사적 기능을 공유하는 중국어같은 언어에서도 기능동사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Modèles linguistiques* VI-1, 1984).

현재까지 기능동사 구문의 존재가 확인된 언어들—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영어, 독

일어, 불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Malayalam어 같은 많은 인구어—은 명백히 (23) ㄱ-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어쨌든, 기능동사의 존재 유무나 그 어휘적 분포의 범위 등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유형론적 변이양상은 —기능동사의 존재와 그 언어를 특징 짓는 여타 형태·통사론적 속성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의 문제를 포함하여— 흥미 있는 연구과제라 생각된다.¹⁷⁾

문제 (16)은 기능동사 가설과 무관하게 그 동안의 언어학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한 언어의 실질적인 어휘부 구축을 위해 그것에 속하는 핵심적인 모든 술어명사를 목록화하여 어휘·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특징을 짓는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동사 범주와 연계시켜— 여전히 많은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된다.

문제 (19)-(20)은 근래 생성문법 계열의 언어학 논의에서 경동사light verb 가설 또는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 가설의 관점으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인데, 우리의 입장으로는 (17)-(18)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5) ㄱ-ㄴ의 하다 구문유형에 한정하여 순수하게 통사론적 논의를 제기하거나 통사론/의미론 사이의 대옹을 분석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17)-(18)의 논의에 집중될 것이다.

우리는 기능동사의 확장된 개념을 수용하여 (17)-(18)의 문제를 검토하는 시각에서 기능동사 구문의 어휘적 기술의 정당성과 필요성의 경험적/관찰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7)-(18)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채택하는 입장은 우선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4) ㄱ. (5) ㄱ-ㄴ 유형의 구문에서 -을 술어명사구는 대격으로 표지된 목적보어로 분석한다.

ㄴ.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서술어 위치에는 하다 이외에 기능동사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다양한 동사어휘가 분포될 수 있다.

ㄷ. 기능동사 구문 내에서 술어명사의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은 (5) ㄱ-ㄴ 유형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ㄹ. 술어명사는 N-를 이외의 통사위치—사격보어 또는 주어 위치—에 분포되어 기능동사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25) 기능동사 구문과 단일술어어휘 구문 사이의 대옹에는 다양한 성격의 어휘적

17) 예컨대, 형용사의 형태·통사론적 속성이 명사와 유사한 라틴어, 불어, 독일어 또는 영어와 같은 언어—형용사·명사언어—에서는 형용사 구문에 실현되는 이른바 계사가 바로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형용사가 동사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한국어 유형의 언어—형용사·동사언어—에서는 형용사 구문에 기능동사 역할을 하는 계사의 실현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용사 범주의 형태·통사론적 속성과 기능동사 구문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유형론적 보편성의 하나를 설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의미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제약은 범언어적 현상이며, 그 제약의 구체적 양상은 언어 특정적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 이 두 구문 사이에 항상 환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4) ㄴ-ㄹ 및 (25)에 입각하여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기능동사 구문의 어휘적 실현양상을 탐구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또 한편 (21)-(22)의 문제에 대한 결론에 의해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21)이 제기하는 술어명사/기능동사 연쇄의 관계는 Gross의 어휘·문법이나 Mel'čuk의 결합·설명사전의 틀에서 설득력있게 실증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투명한 통사/의미 관계로만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전형적인 언어 collocation 관계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제한적 어휘결합 관계를 보이므로 어휘적 — 또는 어휘·통사적 — 기술이 필수적인 현상인 것이다. 기능동사 구문의 어휘적 실현양상의 이러한 특징이 범언어적 일반성을 띠고 있음은 어휘부 중심적인 언어학 논의에서 충분히 지적된 바이다.

한편 기능동사의 의미기능의 문제 (22)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동사는 일반어휘동사가 표현하는 술어적 성격의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보조동사가 표현할 수 있는 바와 같은 상이나 태—능·피동, 주·사동의 대립 — 또는 부정이나 존칭과 같은 문법범주의 의미, 이른바 문법적 의미나 강조·폄하와 같은 문체적·공시적 *connotatif* 의미를 표현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III에서 기능동사의 유형을 살펴보고 IV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술어명사와 단일술어어휘 사이의 대응과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연쇄의 여러 제약적 양상을 지적해 본다. V에서는 한국어 어휘부 구축의 시각에서 기능동사 용법과 그 유형을 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III. 기능동사의 유형

기능동사는 다음과 같은 통사·의미적 변수에 따라 분류하여 특징을 짓고 또 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 술어명사의 통사위치 (대격보어 / 사격보어 / 주어)
- 술어명사가 지배하는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양상 (제 1논항의 주어화 또는 사격보어화 등)
- 기능동사의 문법적·문체적 의미 (상, 태, 존칭, 사동, 부정 또는 강화, 폄하 등).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앞에서 제시한 확장된 기능동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다양한 기능동사를 유형화하고 이중적, 다중적 성격을 보이는 기능동사의 용법을 분

석하는 데에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개별 술어명사의 결합가능한 기능동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것이다.

이 유형화 문제는 천착이 요구되는, 기능동사 연구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잠정적인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하는 데 그치려 한다.

가. 대격보어 위치의 N_{pr} 과 결합가능한 V_{sup}

1. 표준기능동사

N_{pr} (이하에서 술어명사는 N_{pr} 로, 기능동사는 V_{sup} 으로 약기한다)이 대격보어 위치에 분포하고 제 1논항이 주어화된 구문에 실현되는 기능동사를 편의상 표준기능동사로 칭한다. 이 유형은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기능동사가 존재하는 여러 언어에서, 기능동사 구문과 대응되는 단일어 자유동사/형용사 구문이 존재하는 경우, 두 구문 사이의 논항의 통사적 실현 양상이 대체로 평행적이며,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표준기능동사로 지칭하는 것이다. 상이나 태의 실현에 있어서 중립적 또는 무표적non-marqué인 점에서도 그러한 지칭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1.1. 하다 및 그 문체적 변이형

표준기능동사의 대표적 형태는 하다이다. 상당수의 술어명사가 표준기능동사로 하다를 선택하는데, (26)에서 보듯이 이들은 하다 이외의 기능동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¹⁸⁾

이와 같은 동사들은 의미가 비어있거나, 하다에 비해 더 표현적이거나 또는 강화·폄하의 공시적 connotatif 의미만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여 하다의 문체적 변이형으로 묶을 수 있다.¹⁹⁾

18)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 많은 술어명사들은 하다만을 표준기능동사로 선택한다. 다음은 첫 음절에 다-에서 달-까지가 포함된 술어명사 중 이러한 속성을 보이는 예인데 이들이 사실 사전에 수록된 이 범위의 술어명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면화를 하다	다작을 하다	다짐을 하다	다툼을 하다
닦달을 하다	단결을 하다	단교를 하다	단념을 하다
단련을 하다	단명을 하다	단발을 하다	단산을 하다
단속을 하다	단수를 하다	단식을 하다	단언을 하다
단장을 하다	단전을 하다	단결을 하다	단종을 하다
단죄를 하다	단축을 하다	단판을 하다	단평을 하다
단합을 하다	단행을 하다	달리기를 하다	달성을 하다

19) N_{pr} 이 도망이나 왕진 등 이동행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이와 결합이 가능한 가다/오다는 화자가 연루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동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다/오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할 때, 하다와는 의미기능에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야기를 나누다 구문에서 나누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할 때, 역시 하다와는 의미기능이나 통사행태의 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관찰된다. 이야기를 나누다는 대칭구문만 가능하고 이야

(26) 경례를 (하다 + 불이다)	이야기를 (하다 + 나누다)
경비를 (하다 + 보다 + 서다)	잘못을 (하다 + 저지르다)
계획을 (하다 + 꾸미다 + 세우다 + 짜다)	전화를 (하다 + 걸다)
노력을 (하다 + 기울이다 + 들이다 + 바치다 + 쏟아붓다)	
조바심을 (하다 + 치다)	대화를 (하다 + 갖다 + 나누다)
주장을 (하다 + 펴다 + 펼치다)	사기를 (하다 + 치다)
도망을 (하다 + 치다 + 가다 + 오다)	장난을 (하다 + 치다)
질문을 (하다 + 던지다 + 꺼내다)	뒷걸음질을 (하다 + 치다)
참패를 (하다 + 당하다)	득점을 (하다 + 올리다)
충성을 (하다 + 바치다)	명령을 (하다 + 내리다)
침묵을 (하다 + 지키다)	방해를 (하다 + 놓다)
파면을 (하다 + 시키다)	벌을 (하다 + 주다)
폐쇄를 (하다 + 시키다)	성공을 (하다 + 거두다)
합의를 (하다 + 보다)	수속을 (하다 + 밟다)
훈수를 (하다 + 두다)	신호를 (하다 + 보내다)
회진을 (하다 + 돌다)	싸움을 (하다 + 벌이다)
췌방을 (하다 + 놀다 + 놓다)	왕진을 (하다 + 가다 + 오다)

한편 표준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면서 하다를 선택하지 못하는 술어명사도 여럿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하다의 대체형으로 쓰이는 기능동사도 다양한데, 일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7) 가르침을 (*하다 + 베풀다 + 주다)	수모를 (*하다 + 당하다 + 겪다)
개가를 (*하다 + 올리다)	시중을 (*하다 + 들다)
겁을 (*하다 + 먹다)	압력을 (*하다 + 넣다)
관심을 (*하다 + 갖다 + 보이다 + 쏟다)	연민을 (*하다 + 느끼다)
기지개를 (*하다 + 켜다)	영향을 (*하다 + 끼치다 + 미치다 + 주다)
도움을 (*하다 + 주다)	오류를 (*하다 + 범하다 + 저지르다)

기를 하다는 대칭구문/비대칭구문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내재적 대칭술어명사인 대화 구문에서는 하다/나누다는 대칭구문의 구성만 가능하다.

- x) X-가 Y-(에게 + 와) 이야기를 나누다
- xi) X-가 Y-(에게 + 와) 이야기를 하다

따라서 표준 기능동사 하다와 그 변이형 동사와의 관계—특히 의미관계—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술어명사 구문에서 이를 동사(가다, 오다, 나누다 등)가 기능동사로서의 기본적인 통사특성을 하다와 공유하고 있는 점과 그 의미특성을 어휘동사의 온전한 술어적 의미특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기능동사 분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만남을 (*하다 + 갖다)	원한을 (*하다 + 품다)
반란을 (*하다 + 일으키다)	정성을 (*하다 + 기울이다 + 들이다 + 쏟다)
불만을 (*하다 + 갖다 + 느끼다)	제사를 (*하다 + 드리다 + 지내다)
손해를 (*하다 + 보다 + 입다)	죄를 (*하다 + 저지르다 + 짓다)

여기서 기능동사 분석에 문제거리가 되는 동사들 중의 한 부류에 대해 간략히 지적을 해두자.

다음의 자료는 N_{pr} 을 대격보어로 선택하는 한자어 N_{pr} -하다의 구성을 갖는 일련의 복합동사의 예이다.

(28) ㄱ. 고문을 자행하다	공격을 강행하다
노력을 경주하다	배급을 시행하다
부검을 실시하다	연구를 수행하다
(영향력 + 압력)-을 행사하다	조사를 강행하다
ㄴ. 검토를 시작하다	관계를 유지하다
비판을 계속하다	수사를 (완결 + 종결)-하다

이들 동사들은 분리술어명사구의 분포가능성이나, 제 1논항의 동일성 (이들 동사구문에서 주어는 술어명사의 제 1논항과 일치한다) 및 또 다른 의미적 특성 (하다와의 유의성이나 상적 의미특성) 등을 고려하면 기능동사와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29)와 같은 하다 (또 그 변이형)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고 (30) 유형의 명사구 구성이 가능한 점에서 기능동사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29) ㄱ. 공격을 감행을 하다
ㄴ. 관계를 유지를 하다
ㄷ. 수사를 종결을 (하다 + 짓다)
(30) ㄱ. 공격의 감행
ㄴ. 관계의 유지
ㄷ. 수사의 종결

일반적으로 기능동사는 명사형에 대응되지 않는다.

(31) ㄱ. *(연구 + 공격 + 검토)-의 함
ㄴ. *대화의 나눔
ㄷ. *명령의 내림
ㄹ. *충성의 받침

따라서 (28) ㄱ-ㄴ 계열의 동사는 기능동사 분석의 관점에서 좀더 따져 보아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기능동사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1.2. 상기능동사

표준기능동사 하다에 대하여 기동상이나, 반복·습관상, 또는 종결상 등 상적 의미를 표현하며, 여기에 강조·강화 또는 폄하의 공시적 connotatif 의미가 첨가될 수 있다.

- 기동상의 표현

(32) 거래를 트다

관계를 맺다

싸움을 걸다

말을 꺼내다

- 반복상의 표현

(33) (공격 + 공전)-을 거듭하다

(경험 + 훈련)-을 쌓다

(도망 + 이사 + 출장 + 왕진)-을 다니다

(질문 + 육)을 펴붓다

(칭찬 + 변명)-을 늘어놓다

- 습관상의 표현

(34) (인신공격 + 비판)-을 일삼다

- 종결상의 표현

(35) (거래 + 관계)-를 끊다

공격을 (그치다 + 멈추다)

1.3. 존칭기능동사

표준기능동사 하다와 대조적으로 존칭의 의미를 표현하는 기능동사로 드리다, 올리다를 거론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존칭법주가 선어말어미 -스-나 종결어미 등 문법적 수단으로 실현되거나, 진지나 맥 또는 모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 어휘형태로 실현되는 것과 평행해서, 기능동사구문에서는 바로 동사어휘형태로 표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다 또는 주다와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대응이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36) 감사를 (하다 + *주다 + 드리다)

공양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문안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보고를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불공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연락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인사를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제사를 (*하다 + 지내다 + 받들다 + *주다 + 드리다)
 질문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39)의 자료에 의하면, 드리다와 결합이 가능한 Npr 중에서 대부분은 주다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드리다를 단순히 주다의 존칭형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사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다/되다의 관계나 하다/당하다, 하다/시키다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2. 전환기능동사

이항 또는 삼항 술어의 성격을 갖는 명사가 대격보어 위치에 분포되고, 표준기능동사 구문에서와는 달리 대체로 비행위자의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제 2논항, 또는 제 3논항이 주어화되는 단문을 구성하는 기능동사를 전환기능동사로 지칭한다. 전환기능동사구문은 대체로 논항위치의 통사적 전환에 대응하여 피동구문과 유사한 의미해석을 갖게 된다. 한국어의 대표적 전환기능동사는 받다, 당하다인데, 하다의 경우처럼 여러 변이형이 존재하고, 또한 전환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 술어명사라고 해서 모두 받다, 당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이항술어명사 구문

이 경우에 제 2논항은 술어명사구에서 분리되어 N-에게-(서+E), 또는 N-으로부터로 실현되거나 또는 그것에 통합되어 N-(으로부터+E)-의 보어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은 단일동사 돕다에 대응되는 표준기능동사 구문과 전환기능동사 구문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 (37) ㄱ. 우석이는 지혜를 도왔다.
 ㄴ. 우석이는 지혜에게 도움을 주었다.
 ㄷ. 지혜는 우석에게-(서+E) 도움을 받았다.
 ㄹ. 지혜는 우석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ㅁ. 지혜는 우석-(으로부터+E)-의 도움을 받았다.

이항술어명사의 표준기능동사 구문에서 제 2논항은 N-에게 보어 또는 N-를 보어

로 실현될 수 있다.

- (38) ㄱ. 형주는 부장에게 인사를 했다.
- ㄴ. 부장은 형주를 오해를 했다.

(39)의 자료는 몇몇 이항술어명사와 전환기능동사의 결합관계를 보여준다.

- (39) 검문을 (받다 + 당하다)
- 파돌림을 (받다 + 당하다)
- 벼림을 (받다 + 당하다)
- 영향을 받다
- (오해 + 의심)-을 (받다 + 사다)
- 욕을 (*받다 + 먹다 + 듣다)
- 인사를 받다

- 삼항술어명사 구문

삼항술어명사의 전환기능동사 구문에서는 표준기능동사구문에서 보통 N-에게로 실현되는 제 3논항이 주어화된다.

다음에서 연락의 경우만 예로 보이기로 한다.

- (40) ㄱ. 부장은 형주에게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연락했다.
- ㄴ. 부장은 형주에게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 달라는) 연락을 했다.
- ㄷ. 형주는 부장에게-(서+⁷E)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 ㄹ. 형주는 부장으로부터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 ㅁ. 형주는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는 부장(으로부터+E)-의 연락을 받았다.

(40) ㄷ-ㅁ이 전환기능동사 구문에 해당하는데, 이를 구문은 제 1, 제 2논항이 모두 술어명사구에서 분리될 수도 있고, 제 1논항만 분리될 수도 있으며, 이 두 논항이 모두 술어명사구에 통합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41)는 몇몇 삼항술어와 전환기능동사와의 결합가능성을 보여준다.

- (41) 보고를 받다
- 비판을 (받다 + 당하다)
- 전화를 받다
- 질문을 받다

나. 사격보어 위치의 Npr과 결합하는 Vsup

이 유형에 속하는 Vsup는 한국어의 경우 아주 제한되어 있으나 Npr에 뒤따르는 격조사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하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 Npr-에

(42) (고려 + 계산)-에 넣다	(반격 + 비판)-에 나서다
(사랑 + 절망)-에 빠지다	비탄에 (빠지다 + 잡기다 + 젖다)
실의에 (빠지다 + 잡기다 + 젖다)	(사형 + 엄벌 + 극형)-에 처하다
(생산 + 훈련 + 재조사)-에 들어가다	(실행 + 실천)-에 옮기다
(심사 + 토론)-에 불이다	합의에 이르다

- Npr-로

(43) 목표로 삼다 ²⁰⁾	
실패로 돌아가다	

다. 주어위치의 Npr과 결합하는 Vsup

- 무논항술어명사 구문

(44) (비 + 눈)-이 (오다 + 내리다)	바람이 (불다 + 일다)
안개가 끼다	(천둥 + 번개)-가 치다
(소문 + 전염병)-이 (돌다 + 퍼지다)	
전쟁이 (나다 + 터지다 + 일어나다 + 벌어지다)	
(난리 + 사고 + 소동)-이 나다	

- 일항술어명사 구문

(45) 침묵이 흐르다	(긴장 + 응고 + 응결)-이 되다
(전복 + 폐막)-이 되다	(손해 + 피해)-가 가다
(한숨 + 웃음)-이 나오다	잡이 들다

- 이항술어명사 구문

(46) 해당이 되다	(관심 + 동정 + 애착)-이 가다
승진이 되다	(납득 + 믿음 + 수긍 + 의심)-이 가다

20) 목표를 삼다도 가능하다

일치가 되다	영향이 (가다 + 오다)
심취가 되다	정이 (가다 + 떨어지다)
감동이 오다	용기가 (있다 + 없다)

- 삼항술어명사 구문

- (47) (연락 + 전화 + 통지)-가 (되다 + 가다 + 오다)
 (질문 + 주장 + 비판)-이 나오다
 보고가 (되다 + 들어가다 + 들어오다)
 명령이 떨어지다²¹⁾

라. 준기능동사 : 사역기능동사

N_{pr} 이 대격보어 위치에 분포되어 표준기능동사 구문과 평행성을 보이나, 의미상 사역관계를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구문의 동사이다. 표준기능동사 구문(또는 단일동사/형용사 구문)을 내포하는 -게 하다 사역구문과 환언관계가 성립되어 복문분석이 가능하지만, 논향이 외재적으로 실현된 분리술어명사구를 통사논향으로 지배하고 V_{sup} -게 하다가 단일동사로 어휘화되어 실현된 점에서 기능동사와 유사하다. 하다와 대조적으로 쓰이는 시키다가 전형적인 사역기능동사이다.

다음은 하다 구문과 시키다 구문의 대조를 보여준다.

- (48) 형주는 그 문제를 연구를 하였다.
 (49) ㄱ. 부장은 형주-(에게 + 가 + 를) 그 문제를 연구를 하게 했다.
 ㄴ. 부장은 형주-(에게 + 를) 그 문제를 연구를 시켰다.

(50)은 사역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 일부 예를 보인다.

- (50) 용기를 (*시키다 + 주다) [=갖게 하다]
 창피를 (*시키다 + 주다) [=창피하게 (하다 + 만들다)]
 희망을 (*시키다 + 주다 + 안겨주다 + 불어넣다) [=갖게 하다]
 변화를 (*시키다 + 주다 + 가져오다 + 초래하다 + 주다) [=변화하게 하다]
 오해를 (*시키다 + 놓다 + 빚다 + 자아내다 + 불러일으키다)

21) 단-만 유형의 기능동사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거리가 되는 앞의 (28) ㄱ-ㄴ 계열의 동사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사례가 되는데, 이를 동사에 대해서도 비기능동사 분석을 채택하기로 한다.

xii) ㄱ. 조사에 착수하다
 ㄴ. 전쟁이 발발하다
 ㄷ. 사고가 빈발하다

IV. 기능동사와 술어명사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술어명사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술어의 어휘적 투사인 동사나 형용사에 대응되는 술어명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51) ㄱ, 공격	공격하다	각오	각오하다
외출	외출하다	비준	비준하다
ㄴ. 싸움	싸우다	달리기	달리다
셈	세다	벌이	벌다
(52) ㄱ. 창피	창피하다		
무안	무안하다		
불만	불만스럽다		
ㄴ. 어려움	어렵다		
부끄러움	부끄럽다		

(51) ㄱ-ㄴ은 각각 한자어 N_{pr}과 단일어동사와의 대응, 고유어 N_{pr}과 단일어 동사와의 대응을 보여주고, (52) ㄱ-ㄴ은 각각 한자어 N_{pr}과 단일어 형용사와의 대응, 고유어 N_{pr}과 단일어 형용사와의 대응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유한국어 동사/형용사는 대응되는 술어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53) ㄱ. 가다	*감	끼다	*꼽
팔다	*짧	사다	*삼 ²²⁾

22) 다음과 같이 분포가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묘형 요소도 파생명사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xiii) ㄱ. 틀리다	틀림없다	- 틀림이 없다
ㄴ. 어기다	어김없다	- 어김이 없다
ㄷ. 버리다	버림받다	- 버림을 받다
ㄹ. 따돌리다	따돌림받다/따돌림당하다	- 따돌림을 (받다 + 당하다)
ㅁ. 부르다	*부름받다	- 부름을 받다

술어명사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참고로 다음의 관찰을 지적해 둔다.

- 멸다, 빼다, 피우다 등의 일부 기능동사 구문에서 -을 보어위치에만 분포되는 요소들은 모두 술어명사로 한정한다.

xiv) 부지런, 암전, 점잔, 호들갑...

- 다음과 같은 연어적 또는 속어적 표현에 지극히 제한적인 분포로 사용되는 요소들 역시 술어명사로 분석한다.

xv) ㄱ. 유서가 짚다	ㄹ. 유명을 달리하다
ㄴ. 서슬이 시퍼렇다	ㅁ. 악명이 높다
ㄷ. 으름장을 놓다	ㅂ. 난색을 표하다

남다	*남음	대하다	*대	*대함
오다	*옴	취하다	*취	*취함
ㄴ. 싸다	*쌈	하얗다	*하얌	
비싸다	*비쌈	유명하다	*유명	
어질다	*어질음	조용하다	*조용	

반대로 술어가 명사 형태로만 존재하고 대응되는 동사/형용사 형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54)는 일부 이와 같은 사례를 보이는 자료이다.

(54) 반란	*반란하다	애착	*애착하다
오류	*오류하다	원한	*원한하다
수모	*수모하다	연민	*연민하다
환멸	*환멸하다	불공	*불공하다
불만	*불만하다	정(情)	*정하다

(54) 계열의 N_{pr} 은, 이들과 의미상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서 단일어 동사/형용사와의 대응이 가능한 (55) 계열의 N_{pr} 과 대조를 이룬다.

(55) 반항	반항하다	집착	집착하다
잘못	잘못하다	증오	증오하다
망신	망신하다	동정	동정하다
실망	실망하다	예배	예배하다
만족	만족하다		

(54)와 같은 고립술어명사의 목록은 상당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어진 N_{pr} 에 대해 V_{sup} 구문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꼬다의 명사형인 꽈을 하다의 연쇄를 못 이루고, 꽈을 꼬다의 동족보어 구문만 가능하다. 여기서 V_{sup} 구문과 동족보어 구문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실제로 두 구문 사이의 유사성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검토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꽈과 동일한 계열의 또 다른 N_{pr} 인 쪘, 춤과 사이의 상이성만을 지적해 두자.

- -하다형 복합동사중 X-를 하다/X-가 되다 구성이 가능한 요소 X는 모두 술어명사로 분석하고자 한다.

xvi) ㄱ. 해당하다 - 해당을 하다 - 해당이 되다
 ㄴ. 선행하다 - 실행을 하다 - 선행이 되다
 ㄷ. 이룩하다 - 이룩을 하다 - 이룩이 되다
 ㄹ. 비롯하다 - 비롯을 하다 - 비롯이 되다

(56) ㄱ. 잠을 (*하다 + 자다)

잠이 들다

ㄴ. 꿈을 (*하다 + 꾸다)

ㄷ. 춤을 (하다 + 추다)

糟의 경우, 하다 구문은 불가능하지만, 주어 위치에 분포되어 기동상의 의미를 가지는 V_{sup} 구문이 가능하며²³⁾, 춤의 경우는 하다 구문이 가능하다. 이때는 일반적인 하다 V_{sup} 구문과 달리 직업적/전문적 활동의 의미해석으로 제한된다.

N_{pr} 에는 동족보어 구문 구성뿐 아니라 V_{sup} 구문 구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도 있다.²⁴⁾

(54)의 N_{pr} 은 다음과 같이 기능동사 구문 구성이 가능한데, 선택되는 V_{sup} 은 여러 가지이다.

(57) 반란 : X-가 반란을 일으키다

애착 : X-가 Y-(에 + 에게) 애착을 갖다

X-가 Y-(에 + 에게) 애착이 가다

오류 : X-가 오류를 범하다

원한 : X-가 Y-에게 원한을 품다

수모 : X-가 Y-(에게서 +로부터) 수모를 (받다 + 당하다)

연민 : X-가 Y-에게 연민을 느끼다

환멸 : X-가 Y-(에 +에게) 환멸을 느끼다

불공 : X-가 불공을 (드리다 + 올리다)

술어명사의 형태론적 특성을 보면, 한국어 어휘의 통시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한자어 구성이 대부분이지만 여러 유형의 고유 한국어 N_{pr} 도 존재한다. (51) ㄴ이 잠시 보여 준 바와 같은 이 계열의 N_{pr} 이 수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고 V_{sup} 와의 결합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다.

(58)에서 일부 자료를 소개한다.

23) 대응되는 한자어 N_{pr} 인 수면은 다음의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xvii) X-가 수면을 취하다

24) 예컨대 1항술어로서 X-의 N_{pr} 같은 술어명사구 구성이 가능한 동점(動靜), 동태(動態), 동향(動向)등의 명사는 대응되는 단일술어동사나 형용사도 존재하지 않고, 기능동사 구문의 구성도 불가능하다. 이항술어인 동형(同形), 동종(同種), 동시(同時)등의 명사 —이들이 명사임은 동형-의, 동종-의나 동시-에와 같은 표현이 보이듯이 격조사와의 결합 가능성에 의해 확인된다— 역시 대응되는 단일술어동사나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은데, X-가 Y-와 N_{pr} -의다 유형의 구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의는 기능동사와 통사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능동사 개념을 원용하여 -이다 술어명사 구문을 분석해 보는 관점이 가능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홍재성(1997)을 참조할 것.

(58) ㄱ. -므 파생명사

싸움을 (하다 + 벌이다)	놀림을 (받다 + 당하다)
셈을 하다	파돌림을 (받다 + 당하다)
도움을 주다	시달림을 (받다 + 당하다)
믿음을 갖다	보살핌을 받다
만남을 갖다	가르침을 (주다 + 배풀다 + 받다)
벼름을 (받다 + 당하다)	무서움을 (느끼다 + 타다)
미움을 받다	두려움을 (느끼다 + 갖다)
서러움을 받다	부끄러움을 타다
아쉬움을 느끼다	슬픔에 (젖다 + 잠기다 + 빠지다)

ㄴ. -길 파생명사

달리기를 하다
바꿔치기를 하다
앞지르기를 하다
팔굽혀펴기를 하다

ㄷ. -의 파생명사

벌이를 하다
(정역살이 + 시집살이)-를 하다
(창갈이 + 텔갈이)-를 하다

ㄹ. -질 파생명사

걸레질을 (하다 + 치다)
뒷걸음질을 (하다 + 치다)
꼰두박질을 (하다 + 치다)
양치질을 하다
(주먹질 + 빨길질 + 톱질 + 망치질)-을 하다

ㅁ. 기타 유형

얌전을 빼다
점잔을 빼다
(부지런 + 수다)-을 (멀다 + 피우다)
(아양 + 호들갑)-을 멀다

심술을 부리다

(58) ㄱ은 파생 N_{pr}의 어기base가 동사/형용사인 경우를 보인다. -길 파생 N_{pr}과 -의 파생 N_{pr}이 문제되는 (58) ㄴ-ㄷ 경우에는 어기가 단일어가 아닌 합성어일 때 가능동사 구문분포 가능성성이 높은 듯하다.

이상의 지적에서 N_{pr}과 V^{sup}사이의 대응관계를 둘러싼 일부 불규칙적인 양상이 소개되었는데, 이제 N_{pr}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변이의 양상을 조금 더 살펴 보자.

기본적으로 N_{pr} 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결합가능한 V_{sup} 의 유형과 그 어휘형태가 변 이를 보이는데, 우선 몇 가지 동형어 쌍을 자료로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자.

- (59) 부상¹(負傷) : X-가 부상을 (입다 + 당하다)
 부상²(浮上) : X-가 부상을 하다
 X-가 부상이 되다
- (60) 성원¹(成員) : X-가 성원이 되다
 성원²(聲援) : X-가 Y-에게 성원을 (하다 + 보내다)
- (61) 출장¹(出張) : X-가 Y-(에 + 로) 출장을 (?하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출장²(出場) : X-가 Y-에 출장을 하다
- (62) 감정¹(感情) : X-가 Y-에게 감정을 (풀다 + 갖다 + 느끼다)
 감정²(憾情) : X-가 Y-에게 감정이 있다
 감정³(鑑定) : X-가 Y-를 감정을 하다
 Y-가 X-(에게서 +로부터) 감정을 받다.

주어진 N_{pr} 을 다의어로 특징지을 때, 그 구별되는 의미acceptation에 따라, 역시 선택 가능한 V_{sup} 의 유형과 어휘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경우를 나누어 지적해 보자.

- N_{pr} 이 각각 술어적/비술어적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경비, 보초, 사회, 심판같은 명사의 경우 행위(또는 역할)/행위자의 두 가지 의미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행위의 술어적 의미에만 대응되어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데, 이때 선택되는 V_{sup} 의 범위는 차이가 질 수 있다.

- (63) 경비₁(警備) : 경비를 불러오다
 경비에게 말을 걸다 (= 경비원, 경비병)
- 경비₂(警備) : X-가 Y-(를 + 에) 경비를 (하다 + 보다 + 서다)
- (64) 사회₁(司會) : 사회를 찾아다니다
 사회에게 묻다(=사회자)
- 사회₂(司會) : X-가 Y-(를 + 에 + 의) 사회를 (하다 + 보다 + *서다)

- N_{pr} 이 구별되는 두 가지 술어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우리는 홍재성(1993)과 홍재성(1997)에서 N_{pr} 약속과 반대가 각기 두 가지 의미로 구별되며 대응되는 V_{sup} 와의 결합양상이 상이함을 자세히 기술해 본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임을 보이는 몇 가지 다른 사례를 인용해 보겠다.

N_{pr} 상처는 우선 (65) ㄱ-ㄴ이 보이는 두 개의 동형어로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65) ㄴ의 상처는 물리적/생리적 상처₁와 심리적 상처₂의 적어도 두 가지 의미해석을 갖는 다의어로 기술될 수 있다.²⁵⁾ 기능동사와의 양립 가능성은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변이를 나타낸다.

(65) ㄱ. 상처¹(喪妻) : X-가 상처를 하다

- ㄴ. 상처²(傷處) - 상처₁: X-가 Y-에 상처를 (입다 + *받다)
 - X-가 Y-에 상처가 나다
 - Z-가 X-의 Y-에 상처를 (내다 + *주다 + 입하다)
- 상처₂: X-가 Y-(에게서 +로부터) 상처를 (입다 + 받다)
 - Y-가 X-에게 상처를 (*내다 + 주다 + 입하다 + 안겨주다)

보통 다의어로 기술되는 주의, 야단, 압력같은 N_{pr}은 그 구별되는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문구조에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다.

(66) 주의₁(注意) : X-가 Y-에 주의를 (하다 + 기울이다)

주의₂(注意) : X-가 Y-에게 주의를 주다

Y-가 X-(에게로 +로부터) 주의를 (받다 + 듣다)

(67) 야단₁(惹端) : X-가 야단을 (하다 + 피우다 + ?떨다)

X-가 야단이다

야단이 나다

야단₂(惹端) : X-가 Y-에게 야단을 (*하다 + 치다)

Y-가 X-(에게서 +로부터) 야단을 (맞다 + *받다)

(68) 압력₁(壓力) : X-가 압력이 Y-이다

압력₂(壓力) : X-가 Y-(에 +에게) 압력을 넣다

Y-가 X-(에게서 +로부터) 압력을 빙다

이러한 양상은 그밖에도 소리, 시험, 난리, 보증 등의 경우에도 관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의미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의미성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일련의 N_{pr}들이 결합가능한 V_{sup}의 유형의 범위나 어휘형태에 있어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 점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 제시해 본다.

(69) ㄱ. 방해를 (하다 + 놓다 + 놀다 + *치다)

ㄴ. 훼방을 (?하다 + 놓다 + 놀다 + 치다)

(70) ㄱ. 잘못을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ㄴ. 오류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25) 상처은 다음 같은 구문에서 장소의 해석을 갖는다. 따라서 또 하나의 의미를 구별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xviii) 상처에 약을 바르다.

- ㄷ. 실수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 ㄹ. 죄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 ㅁ. 범죄를 (*하다 + 저지르다 + *범하다 + *짓다)
- (71) ㄱ. 도망-을 (하다 + 치다 + *놓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 ㄴ. 도주-를 (하다 + *치다 + *놓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 ㄷ. 도피-를 (하다 + *치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 ㄹ. 출행량-을 (하다 + 치다 + 놓다)
 - ㅁ. 탈주-를 (하다 + *치다 + *놓다)
 - ㅂ. 패주-를 (하다 + *치다 + *놓다)
 - ㅅ. 빵소니-를 (*하다 + 치다 + *놓다)
 - ㅇ. 삼십육계-를 (*하다 + ?치다 + 놓다 + *가다 + *오다 + *다니다)
- (72) ㄱ. 손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 ㄴ. 피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 ㄷ. 폐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 ㄹ. 해-를 (입다 + *보다 + *당하다)

일부 공통된 의미를 지닌 N_{pr} 이 일정하게 어떤 N_{pr} 과 결합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그와 같은 사례를 보인다.

- (73) (패배 + 석패 + 분패 + 영패 + 완패)-을 (하다 + 당하다)
- (74) (싸움 + 다툼 + 전쟁 + 시비 + 논쟁)-을 (하다 + 벌이다)
- (75) (사망 + 서거 + 굽사 + 동사 + 아사 + 자연사 + 병사)-을 (하다 + *되다)

그러나 (73)-(75)와 같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성급하게 (76)의 일반화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본다.

(76) N_{pr} 의 의미특성이 V_{sup} 을 선택하거나 제한한다.

(74)~(75)의 경우는 일부의 국부적 규칙성일 뿐, 현재까지 우리의 관찰로는 (76)의 가설을 지지하기에는 미흡한 듯하다. (76)의 확증을 위해서는 이 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좀 더 광범위한 어휘적 분석과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기능동사 현상의 해명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어휘기술을 위해서는 기능동사의 유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기능동사의 어휘분석

(17) ㄴ-ㄷ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어떤 동사가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차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한국어 동사 어휘의 총체를 분석·기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현 단계의 언어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동사 용법은 동사의 어휘의 의미적/통사적 속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어휘적 특이성이어서 그 존재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능동사 용법이 가능하려면, 우선 통사논항으로 술어명사의 분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성부터 예측이 불 가능한 것이다. 이 속성 역시 개별 동사어휘의 의미에 의존적인 특이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믿다, 알다 등의 “인지동사”나 또는 시작하다, 계속하다와 같은 “국면동사”的 경우는 그 의미로부터 술어명사의 분포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믿다, 알다가 기능동사 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구문의 시작하다/계속하다 역시 그 통사적 행태로 보아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77) 기영이도 기능동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계속하였다)

대체로 밟다나 짓밟다 또는 붙이다나 찢다의 경우처럼, 술어명사와의 결합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역시 술어명사 구문을 모두 기능동사 구문으로 특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²⁶⁾

우리는 기능동사 용법의 어휘의존적 특이성/예측불가능성을 기능동사 현상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가정하고, 기능동사의 어휘부—이론적 어휘부이전, 전산어휘부 또는 일반인쇄 사전이전 간에—표상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어 동사의 총체를 대상으로 그 동사 어휘 하나하나의 가능한 용법을 분석·기술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특히 기능동사 용법의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홍재성·김현권외 (1997)은 이러한 작업의 단편적이 표본을 보인다. 이 작업이 완결되면 한국어에서 기능동사 용법을 보이는 동사의 어느 정도 완벽한 목록이 작성될 것이다.

기능동사의 어휘적 분석은 기능동사 용법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Ⅲ에서 제시한 기능동사의 체계에 따라, 주어진 기능동사가 어떤 유형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동사의 용법과 그 유형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질문(16)에서 제기된 술어명사의 한정과 그 유형화 작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동사 분석과 별도로, 또 그것과 병행해서 수행되어야 할 대규모 과제인데 이 역시 명사어휘 총체에 대

26) 밟다/짓밟다는 다음과 같이 -을 보어 자리에 술어명사가 분포될 수 있다.

xix) 지혜는 신속하게 수속을 밟았다. (=수속하다)

xx) 우석이는 지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러나 xix)만이 기능동사 구문으로 분석될 것이다.

붙이다는 -을 보어 위치에 술어명사가 실현되는 기능동사 용법이 가능하다.

xxi) 기영이는 김중사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경례하다)

xxii) 순주는 이 대목에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설명하다)

찢다 역시 주어 위치에 인물명사가 분포되고 -에 보어 위치에 술어명사가 오는 다음의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xxiii) 그는 (깊은 슬픔 + 실의)-에 젖어 들어갔다.

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재론하기로 하고 동사 중심의 시작에서 논의를 계속해 보자.

개별 기능동사의 유형분석을 시도해 보면, 일반 어휘동사가 다양한 구문적 실현과 의미해석, 한마디로 다양한 용법을 보이듯이 기능동사 역시 단일하게 유형화되지 않고 복잡한 성격을 보이는 경우를 관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중요하고 흥미있는 기능동사의 어휘적 표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술어명사의 통사위치나 술어명사 자체의 어휘적 특성에 따라 단일형태가 이중적, 또는 다중적 용법을 보이는 기능동사의 사례를 몇 경우 제시해 본다.²⁷⁾

- 먹다

(가) 표준기능동사

- (78) ㄱ. X-가 (겁 + 애)-를 먹다
 ㄴ. X-가 Y-(기로 + 고) 마음을 먹다 (=생각을 하다)

(나) 전환기능동사

- | | |
|-------------------------|--|
| (79) Y-가 X-(에게(서) +로부터) | 구박을 먹다(=받다)
욕을 먹다(=듣다)
뇌물을 먹다(=받다) |
|-------------------------|--|

- 올리다

(가) 표준기능동사

- | | |
|----------|-------------------------|
| (80) X-가 | 개가를 올리다
득점을 올리다(=하다) |
|----------|-------------------------|

(나) 존칭기능동사

- (81) X-가 Y-에게 (문안 + 인사)-를 올리다(=드리다)

- 치다

(가) 표준기능동사

- (82) 그, X-가 (혜택 + 몸부림)-을 치다

27) 주다, 받다 또는 있다 등 개별 한국어 기능동사의 분석에 대해서는 박형익(1989), Nho (1992), Chung(1998) 등을 참조할 것.

(나) 자동사적 기능동사

(83) (비바람 + 눈보라)-가 치다

- 미치다

기능동사 미치다는 결합되는 술어명사 영향이 대격보어 위치에 오는 타동사적 표준기능동사 구문과 주어 위치에 오는 자동사적 구문이 모두 가능해서 중립동사와 같은 성격을 보이는데, 일반 어휘동사의 경우처럼 이 두 구문 사이에 의미상 주동/사동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84) 그, X-가 Y-(에게 + 에) 영향을 미친다(=끼친다. 주다)

ㄴ. Y-(에게 + 에) X-(로부터 + 의) 영향이 미친다

- 끼치다

기능동사 끼치다는 미치다와 유사한데, 선택되는 술어명사로 영향 이외에 손해, 해, 누, 폐해 등이 가능하다.

(85) ㄱ. X-가 Y-(에게 + 에) 영향을 끼친다(=주다)

└. Y-(에게 + 에) X-(로부터 + 의) 영향이 끼친다

(86) ㄱ. X-가 Y-(에게 + 에) (손해 + 해 + 누 + 폐해)-를 끼친다

㉡. Y-(에게 + 예) (?손해 + 해 + 누 + ?폐해)-가 끼친다

(86)에서 보듯이 두 번째 부류의 술어명사와 결합되면 두 구문 사이의 대응이 완전하지 못하다. 술어명사가 주어인 경우 제 1논항의 실현이 부자연스럽고, 어휘적 제약도 있는 듯하다.

- 하다

기능동사 구문의 하다는 기본적으로 표준기능동사이다. 하다 기능동사구문은 각주 11)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어위치 술어명사의 논항 수와 그 통사적 실현 양상에 따라 표면적으로 다양한 통사유형을 보인다.

한편 하다 기능동사 구문은 다른 기능동사 구문과의 대응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하위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유형은 잠정적인 것으로 하다 기능동사 구문의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수정·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하다1-/ 하다1-

다음의 (87) ㄱ-ㄴ의 술어명사는 1항술어여서 대용되는 단일어휘동사인 N_{pr-}하다는 자동사구문을 이룬다.

- (87) ㄱ. 취침, 기침, 만발, 출생, 탄생, 사망, 별세, 요절, 급사, 동사, 발정, 방심...
- ㄴ. 급진전, 반전, 붕괴, 불발, 수축, 연소, 긴장, 옹고, 옹결, 지체, 소멸, 마멸, 악화, 공전, 탄생, 전복, 침전, 실직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술어명사는 되다 기능동사구문 가능성에 있어 대조가 된다. (87) ㄴ 계열의 술어명사는 하다 구문과 동의관계를 이루는 (88) ㄴ의 되다 구문이 가능하지만 (87) ㄱ 계열의 술어명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 (88) ㄱ. X-가 (수축 + 연소 + 소멸)-을 하였다.
- ㄴ. X-가 (수축 + 연소 + 소멸)-이 되었다.
- (89) ㄱ. X-가 (취침 + 만발 + 사망)-을 하였다.
- ㄴ. *X-가 (취침 + 만발 + 사망)-이 되었다.

이러한 대응관계의 유무에 따라 (87) ㄱ의 술어명사와 양립하는 하다를 하다1-, (87) ㄴ의 술어명사와 양립하는 하다를 하다1-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다1-과 결합하는 술어명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2항술어도 있다.

- (90) 감동, 도착, 출발, 변화, 숙달, 승격, 승진, 당첨, 심취

(90)의 술어명사 역시 대용되는 단일어휘 동사인 N_{pr-}하다는 자동사 구문을 이룬다.

- (91) ㄱ. X-가 Y-에 감동하다
- ㄴ. X-가 Y-에 도착하다
- ㄷ. X-가 Y-에서 출발하다
- ㄹ. X-가 Y-로 (변화하다 + 승격하다 + 승진하다)
- ㅁ. X-가 Y-에 심취하다

하다1의 특징적인 점은 단순히 되다 구문에 대응될 뿐 아니라 이 때 되다 구문은 하다 구문과 동일하게 X를 주어로 취하고 의미해석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되다 구문과 대응되는 다음의 2항, 3항술어 하다 구문과 구별된다.

- (92) ㄱ. 개선, 개최, 건설, 검토, 분석, 연구, 조사, 파괴, 판매...
 ㄴ. 보고, 연락, 제공

(92) ㄱ-ㄴ의 술어명사의 경우, 대응되는 단일어휘동사인 N_{pr}-하다는 타동사 구문을 이루고 되다 구문을 구성할 때는 논항위치와 격표지가 바뀌고 하다 구문에 대해 피동의 해석을 받는다.

- (93) ㄱ. X-가 Y-를 건설하다
 ㄴ. X-가 Y-를 건설을 하다
 ㄷ. Y-가 X-에 의해 건설이 되다
- (94) ㄱ. X-가 Z-에게 Y-를 제공하다
 ㄴ. X-가 Z-에게 Y-를 제공을 하다
 ㄷ. X-에 의해 Z-에게 Y-가 제공이 되다

하다1/ 하다1의 유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이 두 유형의 구별이 (87) ㄱ-ㄴ과 (90)의 술어명사 및 이에 대응되는 N_{pr}-하다 동사의 의미·통사적 속성과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하다1과 양립하는 술어명사가 대체로 상태변화나 과정을 나타내고, 따라서 제1논항의 의미역이 비행위자(경험자 또는 피동자)로 특정지워질 수 있으나, 이 점은 하다1과 양립하는 술어명사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90)의 부류로 인용된 도착이나 출발의 경우는 이와 같이 특정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도착, 출발의 제1논항을 비행위자로 특정짓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성은, ‘죽음’을 뜻하는 술어명사들이 모두 (87) ㄱ 계열에 속한다는 점이다.

나. 하다2

다음 (95)의 술어명사는 이항술어이면서 대응되는 단일어휘동사 N_{pr}-하다는 자동사 구문을 구성한다.

- (95) 패배, 패소, 완패, 영패, 분패, 참패, 판정패, 망신
 (96) X-가 Y-에게 (패배 + 패소 + 참패)-를 하였다.

이들 하다 구문은 특징이 통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당하다 구문과 대응되는 점이다.

- (96)' X-가 Y-에게 (패배 + 패소 + 참패)-를 당하였다.

(97)의 일항술어 명사도 동일한 속성을 보인다.

- (97) 조난, 실격, 부상₁
 (98) X-가 (조난 + 실격 + 부상₁)-을 하였다
 (98)' X-가 (조난 + 실격 + 부상₁)-을 당하였다

이 경우 당하다는 표준기능동사로 유형화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96)', (98)'의 당하다 구문은 다음과 같은 전환기능동사로써의 당하다 구문과 대조되는 것이다.

- (99) Y-가 X-에게 (고문 + 공격 + 습격 + 기습 + 모욕 + 폭행 + 강간)-을 당하다

(99) 구문의 술어명사는 이항술어로, 대용되는 N_{pr}-하다 동사는 타동사 구문을 이루고, (99)에는 (100)의 표준기능동사 하다 구문에 대용된다.

- (100) X-가 Y-를 (고문 + 공격 + 습격 + 기습 + 모욕 + 폭행 + 강간)-을 하다

(99)/(100)는 의미해석상 능동/피동의 대조를 보인다. 당하다는 이와 같이 전환기능동사/표준기능동사 이중적 용법이 가능하다. 우리는 표준기능동사 당하다와 대용될 수 있는 하다를 하다2로 특징짓고자 한다.

다. 하다3

많은 경우에 N_{pr}-을 하다 구문과 N_{pr}-을 시키다 구문은 152쪽의 (48)과 (49)과 같이 대조된다. 그러나 하다/시키다 구문이 모두 가능한 다음의 관철이나 동결같은 N_{pr}에 대해서는 두 구문 사이의 대조를 볼 수 없다.

- (101) ㄱ. 지혜는 자기 뜻을 관철을 (했다 + 시켰다).
 ㄴ. *기영이는 지혜-(에게 + 를) 자기 뜻을 관철을 시켰다.
 (102) ㄱ.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동결을 (했다 + 시켰다)
 ㄴ. *정부는 서울시에 지하철 요금을 동결을 시켰다.

(101) ㄱ- (102) ㄱ에서 시키다는 하다의 동의어이며, 하다 구문에 대용되는 시키다 사역기능동사 구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유형의 구문에서 시키다는 표준기능동사 하다의 문체적 변이형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변이형 시키다와 대용되는 표준기능동사 하다를 하다3으로 분류한다면, (103)의 이항술어 명사는 모두 이러한 하다를 선택하는 N_{pr}의 예가 된다.

- | | | | | | |
|-------|----|----|----|----|----|
| (103) | 혹사 | 파면 | 불식 | 증진 | 면직 |
| | 회석 | 폐지 | 폐차 | 분리 | 매혹 |
| | 해소 | 격추 | 증강 | 교란 | 폐쇄 |

라. 하다4

이 유형의 하다는 (104)의 N_{pr} 과 결합되는 경우이다.

- (104) 개통 결합 현대화
발족 해산 휴업

이들 N_{pr} -을 하다 구문의 특징은 우선 중립동사 구문으로 특징지워지는 (105)의 일반 어휘동사의 구문과 평행적인 데에 있다.

- (105) ㄱ. 세금이 많이 내렸다.
ㄴ. 새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렸다.
(106) ㄱ. 새 지하철 노선이 개통을 하였다.
ㄴ. 서울시는 새 지하철 노선을 개통을 하였다.

(106) ㄱ은 표준기능동사 구문이며, (106) ㄴ은 사역기능동사 구문이다. (106) ㄴ에서 하다는 시키다로 대체될 수 있다. 한편 (106) ㄱ은 하다1 구문처럼 되다 구문에 대응된다.

- (107) ㄱ. 새 지하철 노선이 개통이 되었다.
ㄴ. 서울시는 새 지하철 노선을 개통을 시켰다.

(104)의 N_{pr} 은 이와 같이 주동/사동의 이중적 의미해석에 대응하는 두 가지 구문이 가능한 하다와 결합되는 것이다.

(106) ㄴ의 하다는 사역기능동사 시키다의 변이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다3 / 하다4의 존재는 하다와 시키다 사이의 대응관계를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는 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사동의 해석을 갖는 시키다 구문이 가능한 N_{pr} 이 모두 하다 구문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08)의 N_{pr} 은 하다 구문에 분포되기 어려운 듯하다.

- (108) 경색을 (*하다 + 시키다)
고조를 (*하다 + 시키다)
연루를 (*하다 + 시키다)
무산을 (*하다 + 시키다)
호전을 (*하다 + 시키다)

이들 술어명사로 구성되는 주동 구문은 모두 N_{pr} -의 되다의 구성을 갖는다.

마. 하다5

삼항술어명사 상속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다 구문이 가능하다.

(109) ㄱ.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유산을 상속을 하였다(=물려주다).

ㄴ. 막내딸은 어머니-(에게서 +로부터 + 의) 유산을 상속을 하였다(=물려 받다).

(109) ㄱ-ㄴ은 각각 표준기능동사구문/전환기능동사구문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109) ㄴ의 하다는 표준기능동사가 아니라 전환기능동사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다는 전환기능동사 받다의 변이형인 셈이다. 실제로 (109) ㄴ에서 하다는 받다로 대체가 가능하다.

(109) ㄴ'. 막내딸은 어머니-(에게서 +로부터 + 의)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

받다의 변이형 하다5가 분포될 수 있는 범위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상속이 하다5 구문을 구성하는 유일한 예이다.

하다/받다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훈련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자. 훈련은 (110)의 두 가지 하다 구문이 가능하다.

(110) ㄱ. 초보자들은 4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였다.

ㄴ. 우석이는 초보자들을 4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였다.

(110) ㄱ-ㄴ의 자료는 이들 구문의 하다를, 주동/사동의 두 가지 용법을 보이는 점에서, 하다4로 특징짓게 해 준다. 사실, (110) ㄴ의 하다는 시키다로 대치된다.

(110) ㄴ' 우석이는 초보자들을 4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한편, (110) ㄱ에 대해 (110) ㄱ'이 가능하다.

(110) ㄱ' 초보자들은 4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렇다면 (110) ㄱ의 하다와 (110) ㄱ'의 받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다5의 경우와 같이 하다가 전환기능동사로서 받다의 변이형이 되는 관계인가? 아니면, 받다가 표준기능동사로서 하다의 변이형이 되는 관계인가? (111) ㄱ-ㄴ의 대조는 이 두 가지 분석이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11) ㄱ. *초보자들은 우석이-(에게서 +로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였다.

ㄴ. 초보자들은 우석이-(에게서 +로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111) ㄴ에 의하면 받다는 표준기능동사 하다에 대응되는 전환기능동사가 아니라, (110) ㄴ/ㄴ'가 예시하는 사역기능동사 시키다/하다에 대응되는 이차적 전환기능동사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111) ㄱ은 (110) ㄱ의 하다가 (110) 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받다의 변이형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준다. 여기서 받다가 보이는 사역기능동사에 대응되는 이차적 전환기능동사의 용법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성격의 받다는 표준기능동사 하다와 직접적인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다/받다/시키다 사이의 이러한 관계, 일반적으로 기능동사 구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한 기능동사 용법 하나하나를 결합 가능한 술어명사와의 상관 속에서 세밀히 분석해 나가므로써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있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거론해 보기로 한다.

술어명사 심부름을 논의의 편의상 이항술어로 특징짓는다면²⁸⁾, 다음의 구문이 가능하다.²⁹⁾

- (112) ㄱ. X-가 Y-에게 심부름을 시키다
- ㄴ. Y-가 X-의 심부름을 하다

이 경우, (112) ㄱ-ㄴ을 사동문/주동문에 대응시키고, 시키다/하다의 관계는 사역기능동사/표준기능동사의 대응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12) ㄴ은 하다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112) ㄴ'으로 환연이 가능한 점에서 (112) ㄱ에 대한 주동문으로 분석할 수 없다.

- (112) ㄴ' Y-가 X-가 시킨 심부름을 하다

(112) ㄴ'이 보여주는 바는 (112) ㄱ의 시키다에 오히려 표준기능동사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점이다. 사실, X, Y는 모두 심부름의 술어 의미를 특징짓는 필수적인 논항이므로, 시키다의 일반사역구문에서와 같이 X를 심부름의 상황을 야기시키는 외재적인 사역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12) ㄴ의 하다는 어떤 성격의 동사인가? 형식적으로 보면 다음 (113) ㄴ의 받다와 같이 표준기능동사 시키다에 대응되는 전환기능동사로 분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 (113) ㄱ. X-가 Y-에게 도움을 주다
- ㄴ. Y-가 X-의 도움을 받다

그러나 (112)-(113) ㄴ'의 대조는 (112) ㄴ의 하다를 전환기능동사로 특징짓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28) 엄밀하게 분석한다면 심부름의 내용이 또 하나의 논항으로 설정되어 삼항술어로 기술될 수 있다. 제 삼의 논항을 Z로 표기하면 다음의 명사구들은 Z-는 X-의 N_{pr}구성을 갖는다.

xxiv) 담배를 사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29) Y-의 심부름, Y-에 의한 X-의 심부름과 같은 술어명사구 구성을 불가능하고, 대응되는 단일술어어휘동사 심부름하다는 관계절 속에서 주로 쓰이고 X의 실현은 어렵다.

(112) ㄴ' *Y-가 X-(에게서 +로부터) 심부름을 하다

(113) ㄴ' Y-가 X-(에게서 +로부터) 도움을 받다

뿐만 아니라 (112) ㄴ'은 제2논항이 주어인 구문에서 제1논항이 술어명사구에서 분리·실현될 수 없음을 보이는 점에서 이 하다가 기능동사가 아님을 암시하기까지 한다. 사실, 우리의 의미직관에 의하면, 이 하다는 다음과 같은 술어명사 구문에서 따르다, 수행하다 또는 지키다와 같은 성격의 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114) 지시를 하다	지시를 받다	지시에 따르다
명령을 하다	명령을 받다	명령을 수행하다
부탁을 하다	부탁을 받다	부탁을 들어주다
약속을 하다	약속을 받아내다	약속을 지키다
심부름을 시키다	심부름을 ?	심부름을 하다

(114)의 자료에 의하면, 세 번째 계열의 표현은, 술어명사가 표상하는 상황에 내재하는 목표나 지향을 제2논항을 주어로 하여 실현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약속을 지키다는 제1논항이 주어가 되는 경우이다—, 기능동사의 개념을 이러한 표현의 동사들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114)의 자료는 또한 술어명사 심부름은 전환기능동사 구문에 어휘적 공백이 있음을, 다시 말해 전환기능동사 구문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VI. 맺음말

이 글은 기능동사 구문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휘적 분석과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기능동사의 개념과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주요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기능동사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단문 구조 내에서 기능동사와 술어명사의 상관이 보여주는 제한적 어휘공기 관계의 여러 양상을 살피고, 또한 기능동사의 어휘분석 사례를 몇 경우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불충분하고 소개된 사례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행한 기술적descriptive이고 경험적인 어휘·통사론적 탐구의 방법론과 그 성과는 기능동사 문제의 해명에 필수적이며, 동시에 동사 어휘의 연구에 새로운 영역을 열어, 어휘부 구축의 관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하리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창섭 1998ㄱ.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관악어문』22.
- _____ 1998ㄴ. 국어 어휘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만규 1997. “동사 ‘나다’의 한불사전 기술 시론”,『불어불문학연구』제34집, 한국불어불문학회.
- 박형익 1989. “주다 동사의 세 가지 용법”,『한글』203호
- _____ 1991. “여격동사”,『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 교수 회갑논문집.
- 시정곤 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국어학』24, 국어학회.
- 연재훈 1989. “국어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한글』203호.
- 이선희 1993. 복합술어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홍빈 1979. 용언의 어근 분리현상에 대하여,『언어』4-2, 한국언어학회.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어학연구』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선혜 1990. 불어 기능동사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 _____ 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새국어생활』제2권 4호.
- _____ 1993ㄱ. “‘약속’의 문법 :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동방학지』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_____ 1993ㄴ. “동사 ‘빠지다’의 사전적 기술을 위하여”,『인문논총』제29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_____ 1995. “어휘함수 개념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사전편찬”,『해방 50주년 — 세계 속의 한국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1997. “술어명사 사전과 ‘-이다’ 술어명사 구문의 기술”, 제6회 국제한국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글학회.
- _____ 1998ㄱ. “이동동사와 기능동사”,『말』제22호, 연세대학교 어학당.
- _____ 1998ㄴ. “동사·형용사의 사전적 처리”,『새국어생활』제8권 제1호.
- 홍재성·박만규 1997. “자동사적 기능동사의 통사·의미적 분석”, Proceedings of the Four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 한국언어학회.
- 홍재성·김현권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사전』, 두산동아.
- 홍재성·박동인외 1998. 연구보고서 :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개발—, 문화관광부.
- Ahn, H.-D. 1991. *Light Verb,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 D. Dissertation.
- Baron, I., & Herslund, M. 1998. Support verb constructions as predicate formation

- in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in Functional Grammar*, Olbertz, H. et al. eds., John Benjamins.
- Cattel, R. 1984.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Academic Press.
- Chung, M.-C. 1998. *Les nominalisations d'adjectifs en coréen : constructions nominales à support issda*,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7.
- Giry-Schneider, J. 1978. *Les nominalisations en français. L'opérateur FAIRE dans le lexique*, Droz.
- _____. 1987. *Les prédictats nominaux en français*, Droz.
- Grimshaw, J. and A. Mester, 1988. Light verb and θ-marking, *Linguistic Inquiry* 19-2.
- Gross, G. 1989.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français*, Droz.
- _____. 1994. Classes d'objets et description des verbes, *Langages* 115, Larousse
- Gross, G. et Clas, A. 1997. Synonymie, polysémie et classes d'objets, *Meta* 42-1.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 _____. 1981. Les bases empiriques de la notion de prédicat sémantique, *Langages* 63, Larousse.
- _____. 1998. La fonction sémantique des verbes supports, *Travaux de Linguistique*, N° 37.
- Jayaseelan, K. A. 1988. Complex predicates and θ-theory in *Syntax and Semantics* 21. *Thematic Relations*, Wilkins, W.(ed). Academic Press.
- Kim, J.-R. 1993. *A Lexical-Functional Grammar Account of Light Verbs*, Seoul : Thaeahksa.
- Langages* 121, 1996. Les supports, Larousse.
- Langages* 131, 1998. Les classes d'objets, Larousse.
- Langue Française* 69, 1986. Syntaxe des noms, Larousse.
- Lim, J.-S. 1996. Verbe Support et Nom Prédicatif en Position Sujet,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Machonis, P. 1991. The support verb 'make', *Computational Lexicography*, Budapest :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 Mel'čuk, I. et al. 1984, 1988, 1993.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 II, II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odèles Linguistiques* VI-1, 1984. L'opposition verbo-nominale dans diverses langues du mond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 Nam, J. S. 1998. Lexique-grammaire et lexique électronique : les séquences comportant hatla, *Travaux de Linguistique* N° 37.
- Nho, Y.-C. 1992. *Les constructions converses du coréen : étude des prédicats nominaux*,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7.
- Pak, M.-G. 1997. Traduction automatique et classes d'objets : le problème de porter un vêtement en français et en coréen, *Meta* 42-1.
- Park, K.-Y. 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Seoul : Thaeahksa.
- Ramos, M. A. 1991. Verbes supports et fonctions lexicales,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XV:1.
- Wanner, L. ed. 1996. *Lexical Functions in Lexicography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Zacro, M. A. 1999. Interlingual Representation of Complex Predicates in a Multilingual Approach : The Problem of Lexical Selection in *Predicative Forms in Natural Language and in Lexical Knowledge Bases*, Saint-Dizier, P.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 Zusammenfassung

Approche lexicale des verbes supports

Chai-song Hong

Dans le présent article, nous nous proposons de confirmer la validité théorique et méthodologique de l'approche lexicale dans l'étude des verbes supports. Cette perspective est illustrée par le lexique-grammaire de M. Gross, d'une part et d'autre part, par le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I. Mel'čuk.

Nous adoptons une conception étendue du verbe support à la Mel'čuk, sans négliger pour autant l'argumentation lexico-syntaxique à la Gross.

Nous examinons quelques principales questions soulevées par les verbes supports à travers les données lexicales du coréen contemporain. Et cela, en introduisant le système de classification des verbes supports, élaboré à partir des paramètres suivants, parmi d'autres : la position syntaxique des noms prédictifs et celle de leurs arguments dans la construction des verbes supports ainsi que la fonction sémantique de ces derniers.

Nous procédons d'un autre côté à l'analyse des verbes polyfonctionnels — verbes à multiple emploi en tant que verbes supports, qui peuvent correspondre aux verbes ordinaires polysémiques —; ce type de travail constituant un nouvel élément dans la problématique des verbes supports, ne peut s'effectuer de façon valide que dans l'approche lexicale.